

## 채소순례

수세미 오이

(7)

[학명] *Luffa cylindrica*(LINN)  
M. J. ROEM (=*Luffa cylindrica* ROEN=*Luffa aegyptica* Mill).

(Cucurbitaceae, 박과)

[영명] Loofah, Sponge gourd,  
Vegetable sponge, Sp-  
ongy cucumber, Su-  
Kwa, Towel gourd.

[중국어] 絲瓜, 南蠻瓜, 蠻瓜

인도를 비롯하여 동양권에서는  
섬유가 발달하지 않는 계통의 수  
세미외를 채소로서 오이와 마찬가  
지로 어린 과실을 수우프에 넣어  
익혀서 먹는데 감미가 있고 품질  
이 좋은 것이다. 최근 열대 및  
아열대 농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  
지고 있으므로 이들 지역에서 채  
소로 쓰이는 수세미외(이후 수세  
미오이로 호칭함)에 대해서 이야  
기코자 한다.

수세미는 섬유(纖維)를 목적으  
로 재배되는 경우가 많으나 어린

경북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이우승

과실은 식용할 수 있고 성숙하더  
라도 섬유가 발달하지 않으며 향  
기가 있어 채소용으로 이용되는  
것이 있다.

영어의 이름은 섬유를 이용한다  
는 뜻으로 이름 붙여진 것이 많은  
데 그중 루화(Loofah)는 아랍어  
(Lufah)로부터 나온 것이며 말레이  
이에서 수세미오이(Petola manis,  
ketola manis)의 페토라(Petola,  
또는 ketola)는 뱀오이(Snake go-  
urd)를 가리키고 마니스(manis)  
는 감미라는 뜻이 있는데 말레이  
에서는 뱀오이보다 재배역사는 늦  
었고 뱀오이와 같이 쓴맛(苦味)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다.

학명의 루화(Luffa)는 아라비  
아어(louff)로부터 나온 것이며 시  
린드리카(cylindrica)는 원통형의  
뜻으로 과실의 모양으로부터 부쳐  
진 것이다. 이집트티카(aegyptica)  
는 북아프리카의 이집트 산의 뜻  
이다.

수세미는 세계 전역의 열대와  
온대 지역에서 재배되고 또 재배종

아라비아 원산으로 각 지역에 전파된 듯

이 떨어져 나가서 자생되고 있으나 오랜 옛부터 재배되고 있으므로 원산지는 아프리카 또는 아시아로 확정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열대 아시아지역 특히 인도에서 오랜동안 순화되어 온 것이나 인도에서는 산스크리트어(Sanskrit, 梵語)에는 없다고 하므로 원산지가 서부 아시아열대 즉 아라비아지방에서 출발되어 각지에 전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기원 600년에 전해졌고 이집트에서는 10세기경부터 아라비아어의 루흐(Luff)의 이름으로 재배되기 시작되었다고 한다. 유럽에는 1739년에 전파되었다고 하며 인도에서는 보풀수세미(Angled Loofah)와 함께 일반적으로 쓰이는 채소이며 말레이를 위시해서 동남아시아에서는 재배가 보편화되어 있다.

우리 나라의 유중임(柳重臨)의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 1766)에서는 수세미오이(絲蔗)를 봄에 파종하고 오이의 재배법과 같다고 하고 덩굴을 유인하여 울타리에 올리고 서로 맷혀지는 열매는 채소로 쓰여질 수 있고 성숙되면 속에 들어있는 수세미를 끄집어 내어 그릇을 씻는데 사용할 수 있고 어린아이의 천연두(痘瘡)를

치료한다는 기록으로부터 보면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된 것으로 보여진다.

수세미오이의 식용되는 어린과실의 성분은 수분 93%, 단백질 1.2%, 지방 0.2%, 탄수화물 3.1%, 섬유 2.0%, 회분 0.5%이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지역에 따라 잎을 식용하기도 하나 맛이 달백하므로 채소로서는 좋은 편이 아니다. 또 꽂봉오리나 솟꽃을 따서 먹기도 한다. 종자로부터 얻어지는 기름은 반전성유(半乾性油)로서 식용된다. 종자에는 46%의 기름과 40%의 단백질이 있다. 또 코로신진(coloxythin)이라고 하는 알카로이드도 함유하고 있다.

성숙된 과실의 유관속조직은 스폰지로서 여러가지 용도로 쓰여진다. 옛부터 목욕할 때 라든지 청소용의 스폰지라든지 신발류의 밀창, 헬멧 등의 완충재료로서 사용되었다. 또 수세미풀은 줄기를 절단해서 지하부로부터 침출하는 액을 모은 것인데 옛부터 화장수(化粧水)로서 이용되었다. 열대지역에서는 성숙과를 하제(下劑)로서 쓰여졌고 잎즙(葉汁)은 월경불순, 이질에 쓰여지기도 했으며 인도에서는 뱀에 물린 상처에 쓰여지기도 했다.

## 줄기 절단해 얻은 침출액은 화장수로 이용